

# 고려아연, 비철금속 증설로 호조

## 한국투자, 생산능력 확대로 성장성 커 ... 환율 하락은 상승요인

한국투자증권은 10월25일 고려아연의 3/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밑돌았지만, 생산능력 확대가 성장성에 반영될 시기라며 목표주가를 28만원에서 3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.

최문선 애널리스트는 “4/4분기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은 1594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60.9% 증가할 것”이라며 “은과 금속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출하량이 증가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“2011년에는 생산능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”면서 “2009년 12월 완공한 온산공장에 이어 2010년 11월에는 아연전해 공장, 2011년 2월에는 연제련 공장이 완공돼 생산능력이 아연 60만톤, 납 30만톤, 은 2000톤, 동 3만톤으로 각각 30-67% 증가해 제련 수수료나 금속가격의 상승 없이도 성장이 가능하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고려아연은 원/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170억원 가량 감소하지만, 최근 원/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유동성 증가 때문으로 금속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”면서 “원/달러 환율 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”고 주장했다.

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대가 머지않아 성장성에 반영될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 목표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(PBR)의 2배이며 현재의 주가 대비 23%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. <저작권 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0/25>